

6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Chapter

출 3:1~4:17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177장 (내 이름 아시죠)

오늘 배울



말씀

1.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을 찾고 계심을 압니다.
2.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예'로 답해야 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휴일인 오늘, 모처럼 옆 반 학생들과 야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한창 무르익어 양 팀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니 지금 바로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문자를 받은 학생은 집으로 곧장 가야 할까요?
아니면 늦더라도 경기를 마치고 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른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나의 생각은 :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고난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큰 일에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도망한지 벌써 40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그가 한 일이라고는 광야에서 양치는 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을 심어 주셨고,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모세는 역사상 매우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Calling)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두 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 번은 구원을 받을 때이며, 또 한 번은 일을 맡을 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시지 않고 구원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말씀

을 마음 판에 새기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 4:11~12)

So the LORD said to him, "Who has made man's mouth? Or who makes the mute, the deaf, the seeing, or the blind? Have not I, the LORD? "Now therefore, go, and I will be with your mouth and teach you what you shall say" (Ex 4:11~1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렘 1:4~8)

(사 1:6~10)

(마 28:18~20)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출애굽기 3장 6~12절을 읽고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2장 23~25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2. 종종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3장 7절과 8절을 읽고 다음 빈 칸을 채워 봅시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 부르짖음을 (), 그 우고를 (), 내가 (), 애굽인의 손에서 (), 그 땅에서 (), 지방에 () 하노라.
3.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
4. 모세는 다섯 번이나 자신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5.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시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사는 이유



동물인 돼지도 먹기 위해 산다는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부를 위해 사는 걸까요? 명예? 아니면 사랑?

그 해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본업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솜씨를 가지고 상공부 장관직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내가 만일 장관이 되어 나라 일에 바빠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학교 교사직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그는 장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그를 만나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만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야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장관직은 부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직이 내가 일평생 해야 할 본업이지 대통령의 명에 의해 몇 해 하다 맡게 될 장관직이 본업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 받은 이 자리를 그저 젊은 시절에 잠깐 경험해 보는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일평생 해야 할 본업으로 생각하며 강한 소명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Wednesday

수요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main text of the Wednesday devotion.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main text of the Sunday devotion.